

씨뿌리는 자의 비유1

성경에서 보면 여러 가지 비유들이 나와있는데, 그 중심에 있는 비유로 씨 뿌리는자의 비유를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뜻을 물어보자,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비유를 알아듣지 못하면서, 어떻게 모든 비유를 이해하겠느냐? (막 4:13)”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는 총 4가지 종류의 땅이 나옵니다. 길가, 돌짜밭, 가시덤불, 좋은 땅. 이 네 가지 종류의 땅은 각기 **말씀 듣는자의 마음상태**를 나타냅니다.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어떠하냐에 따라 **같은 말씀일지라도**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땅은 길가입니다. 아시다시피 길가는 가장 강박한 마음상태입니다. 너무 단단해서 씨가 조금도 뿌리를 뻗지 못합니다. 결국은 덩그러니 떨어져 있는 씨를 새가 날아와서 쪼아 먹어버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를 못하면** (마 13:19)이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깨닫는다는 말은 단순히 머리로 이해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깨닫는다는 말은 **마음깊이 동의할 뿐만 아니라 결심하는 데에까지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 단순히 좋은 말씀이다 정도가 아니라 정말 저렇게 해 봐야겠다고 강하게 도전을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 정말 저 말씀대로 해 봐야겠다. 정말 저렇게 살아 봐야겠다고 강하게 동의가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평소에 바울교회의 말씀에서 그런 일을 경험하지 못하고 계신다면, 부흥회와 같은 곳이나, 선교사님들이 성경을 읽으셔야 한다면 강하게 도전하셨던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그렇게 도전을 받지 못하고,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는 정도로는 심령의 변화를 받지 못합니다. 그저 좋

은 말씀정도로밖에는 생각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한 말씀은 성전 문을 열고 나가면서 더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지난 주 설교가 뭐였는지도 생각이 잘 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일이 목회자들에게도 일어나곤 합니다.

둘째는 돌짜밭입니다. 돌짜밭에는 흙이 얇게 깔려있어서 떨어진 씨가 곧 싹을 내지만, 밑에 있는 돌들로 인해서 더 이상 깊이 뿌리를 내지 못하여, 결국에는 뜨거운 햇볕에 떠오르면 다 타버린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단어는 ‘곧’입니다. “그는 말씀을 듣고, 곧 기쁘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 가지 못하고**,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진다. (마 13:20-21).” 말씀에서 계속해서 곧이라는 표현이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은 겉으로 볼 때 순종적인 사람일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는 사람일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도전에도 은혜를 받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목사님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너무나 감사한 분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얇은 결심과 결단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은혜를 받고 집으로 돌아가면 내 정말 이번주는 한번 다르게 살아 봐야겠다고 결심을 하지만, 집에 가보면 여러 가지 생활의 바쁨과 피곤함들을 경험합니다. 결국은 마음먹었던 생각이나 계획들이 얼마가지 못해 흐지부지 된다는 것입니다. 작심삼일의 일이 벌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말씀이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또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26.9.6 여러분의 가족 이목사

주일오전예배 말씀요약

오늘 말씀에서는 이집트 땅에 어마어마한 재앙들이 쏟아부어집니다. 그냥 재앙정도가 아니라 한 나라를 멸망시킬만한 그러한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재앙이 한 두 번이 아니라 열 번이나 일어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러한 재앙이 모세의 기도 한 번이면 순식간에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놀라운 광경을 자신의 눈앞에서 목격하고 있는 바로의 태도입니다. 이 놀라운 광경 앞에서 그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재앙을 당할 때는 회개하는 듯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지만, 모세의 기적으로 회복되는 즉시 언제 그랬냐는 듯이 태도를 바꿉니다.

인간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죄의 심각함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해결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도 제시합니다. 바로 어린 양의 피입니다.

구역모임

1.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바로와 같이 나 역시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정어린 회개를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2. 죄의 문제는 오직 **죽음**으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양의 피로 심판을 피했던 이스라엘과 같이,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심판을 피할 길을 마련해주셨습니까?!